

행복한 시험

「학력사항」

- 파리2대학교 대학원 국제법 박사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사항」

- 상설국제중재법원 중재관
-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학장
- 사법통일국제연구소 집행이사
- 고려대학교 교무처 처장
-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총장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주프랑스 대사관
- 주세네갈 대사관
- 1973년 제7회 외무고시 수석합격



유병화

I. 행복하고 싶다

시험이라면 대체로 초조, 불안, 고독, 권태 등 퇴색적인 단어들만 연상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살다보면 어차피 거쳐야 하는 필요악, 그러니까 흥역 같은 것이다. 그런데 구태여 행복한 시험이라고 한 것은 오랜 수험생활을 통한 비꼬인 마음도 아니고 회전목마에 앉은 어린애가 내려다보며 갖는 철부지 자만심도 아니다. 그저 마음에 떠오른 것을 달을 보듯, 별을 보듯 정직하게 적을 뿐이다.

팁수룩한 수염에 혈렁한 바지와 퇴색한 잠바, 비듬이 날리는 멋대로 영킨 머리카락, 오랜 연륜을 알리는 창백한 얼굴, 손잡이가 낡아 떨어진 재수생 가방 그 속에 들어있는 두 개의 도시락, 검은 때에 글자마저 지워진 육법전서, 별을 보고 일어나서 별을 보고 자는 하루, 한 번 운이 잡히는 날엔 천하를 삼킬 것 같은 공복에 부푼 가슴, 즉 이틀만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

아끼고 아껴야 할 최상의 엘리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 사회, 그 제도가 어떤 때는 한없이 미워진다.

고시를 준비하려면 꼭 이런 생활을 거쳐야 하는지는 그만두자. 다만 적어도 외무직 시험만은 사정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러기에 행복한 시험이라 하였다.

그러면 왜 행복할까?

1. 외무시험준비는 불안하지 않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진통은 역시 불안일 것이다. 몇 번의 불운을 당하는 동안 나이는 먹고 취직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삶은 눈 위에 서리가 내리고 다시 눈이 내리고, 그러나 외무직의 경우에는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반드시 둘 이상 열심히 해야 하므로 시험준비를 하면 오히려 취직이 쉬워진다.

2. 합격이 불안하지 않다

모든 공부는 할수록 눈에 띄게 진전되고 따라서 점점 합격의 확률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시의 경우 오랜 준비를 했으나 계속 쓴맛을 보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외무직의 경우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닐 것이다. 여덟 과목 중 외국어를 세 과목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어의 경우에는 1년 공부한 사람과 2년 공부한 사람과의 차이는 재수가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 그리고 일반 법과목의 경우 60점을 주면 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험위원들의 딱한 아량이다. 그러나 외국어는 90점 까지도 나온다.

3. 공부 내용이 권태롭지 않다

학문이란 모두 그 나름대로 약이 있고 매력이 있다. 법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똑같은 민법총칙을 열번, 스무번 읽어서 초등학생처럼 외우면서 학문하는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조금 지나칠 것이다. 그러나 외무직의 경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외국어를 세 과목까지 할 수 있는데 공부분량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며 또한 그 내용이라야 외국어로 쓰여졌을 뿐이지 대체로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는 하면 할수록 매력이 가미된다는 것이 특징일 것이다.

4. 시험의 위험성이 적다

보통 법과목의 경우 논문식 2문제가 부과된다. 그중 1문제가 의외라면 합격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의 경우는 그럴 염려가 거의 없다. 또 법과목의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익혔어도 시험 직전에 한번 훑어보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 보통이나 그러나 외국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시험 전에는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여러 모로 좋다.

5. 합격후의 장래가 낙관적이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며 그에 따라 생각하는 모습도 다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좋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관을 적용시키면서도 얼마나 자기를 간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논리의 세계가 아니라면, 힘과 돈의 가치적 비중이 풍미하는 전근대적 가치사회에서 몸부림치는 젊은이가 감상으로 나타난다면 참으로 참기 어려운 결론, 즉 한층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 더 큰 권력에 자기를 파는 창녀적 처세관이 죽도록 밀다는 것이다.

II. 망설이는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시험을 망설이는 데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겸손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전공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주저한 분들이 있을 것이다. 또 가정형편상 편안히 공부만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외국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겸손한 분들에게, 즉 사람들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조금은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그 능력의 차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라면 합격을 논하는 데에는 무시하여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는 능력의 차(差)와 성격의 차(差)를 오인하는 것 같다. 대체로 능력을 의심하는 분들의 경우는 정말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예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몇 번 불운을 맞보면 더욱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출제위원들의 평가에 따라 형(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시험을 여러 번 보면 불운 수도 있고, 떨어지는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한번만 합격하면 된다. 자, 형(兄)아! 용기를 내자.

1. 전공이 다른 분들에게

이 말은 지극히 애매하다. 외무직에 맞는 전공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외무직에 해당하는 전공은 없다. 그것은 시험과목을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법대 출신과 외교과 출신이 많은 것은 전공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런 분야의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따라서 응시자가 많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떤 분야 출신이건 우선 상관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자기전공을 떠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런 것은 본인의 취향이며 다만 “전공 때문에” 망설일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이번 합격자 중에서도 공대 출신, 사범대학 출신, 사회학과 출신, 사학과 출신, 국문과 출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외국어 계통 출신이 유리하다는 데에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공부만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초등학교에 가면 운동회라는 것이 있고 그 중에 맨손달리기가 꼭 들어 있다. 출발선 위에는 부유한 아이건 가난한 아이건 모두 똑같이 서서 출발 호각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세 상을 사는 달리기에는 그 출발점이 모두 다르다. 출발점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뛰는 조건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로 가고, 어떤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지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한발로 뛰어야 한다.

결국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긴 나도 직장에 있으면서 시험을 치루었다. 문제는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해야지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외국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에게

외국어 때문에 자신이 없다는 분들을 많이 만난다. 외국어가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외국어는 정말 어려운가?

어렵다고도 할 수 없고 쉽다고도 할 수 없다. 미국에 사는 아주 열간이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어렵다고 할 수 없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간단한 영문조차 읽지 못하는 것을 보면 쉬운 것도 아니다. 결국 외국어는 쉽지만 간단하지는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야간 끈기있게 하면 틀림없이 합격 할 수 있는 것이 외국어이다.

Ⅲ. 건방진 이야기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는 수험생만이 있다. 누구나 불안하고 긴장을 느낀다. 그러다 합격자 발표가 있다. 그러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생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합격자는 불합격자가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 불합격자와 합격자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합격·불합격 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그 차이도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합격했다고 남을 지도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건방진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내 나름대로 합격을 위하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나열하는데 그치겠다.

1. 자료문제

외무직 시험은 사시와는 달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사시의 경우에는 교과서와 문제집이 매우 면밀하게 잘 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이 독자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외무직의 경우에 국제법이나 외교사는 매우 유동적 인데다 외교사의 경우 교과서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 여건하에서는 수험생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

2. 선택과목 문제

사법시험과는 달라서 선택과목이 다양하다. 따라서 과목선택은 의외로 중요하다. 대체로 자기 전공과 관련하여 선택한 경향이 있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다만 남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을 피하고 응시자가 극히 적은 과목을 선택하는 재치는 지극히 큰 구실을 하리라고 본다. 응시자가 단지 4명뿐인데 점수를 박하게 줄 수 있을까!

3. 외국어 선택문제

영어는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택외국어이다. 우선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외국어는 70점 이상 얻기가 비교적 쉽다. 그뿐 아니라 합격 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외국어가 좋을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다만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면 독어보다는 불어가 쉽고 말하고 싶다. 대체로 불어, 서반아어, 이태리어 등 라틴계통의 말은 영어와 모체가 같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4. 교과서 문제

이것은 특별히 국제법을 비롯한 몇 과목에만 해당하는 문제인데 어느 쪽만을 읽고 다른 것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식의 답안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제법을 예로 보면 자연법론과 실증법론이 크게 대립될 뿐 아니라 내용의 체제도 다르다.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서서 다른편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자기의 것은 타당하지만, 다른 편을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다면 점수를 따지기 전에 학문을 하는 태도로서 문제가 있다.

IV. 파리에서 만남시다

어부에게는 바다가 있고, 농부에게는 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다도 들도 모두 포함한 세계가 있다. 지구 극변(極邊)까지 민족의 얼을 전하며 세계평화의 사도로서 화해를 도모케 하는 것, 즉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다. 형아, 너의 가슴은 제한을 받기에는 너무 크다. 세계가 너의 무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 파리에서 만남시다.